

#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 간의 관계에 관한 일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Satisfaction and Marital Stability—

성심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강사 전 춘 애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박 성 연

Dept. of Home Management, Song Sim Women's University

Lecturer: Chun Ae Jun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en's University

Prof.: Seong Yeon Park

## 〈목 차〉

- |                 |                     |
|-----------------|---------------------|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IV. 연구방법            |
| II. 이론적 배경      | 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I. 연구문제       | VI. 요약 및 결론<br>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external pressures to remain married and alternative attractions to a marriage influence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satisfaction and marital stability.

A total of 228 married women in Seoul responded to structured questionnaire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While the marital satisfaction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marital stability, the alternative attractions to a marriage a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marital stability. But there is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external pressures to remain married and marital stability.
2. The relationship strength between marital satisfaction and marital stability according to the level of external pressures to remain married and actual alternatives to a marriage is not appeared significant difference.
3. When the external pressures to remain married are low and the imaginary

alternatives to a marriage are low, marital satisfaction is the most powerful predictor of marital stability.

4. Whether wife has a job and marital satisfaction affected the marital stability independently.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통계청의 이혼통계(1991)에 의하면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를 나타내는 조이혼율(crude divorce rate)은 1970년대 초반에는 0.4에서 90년대 초인 최근에는 1.1 수준으로 증가되었다. 또한 이혼 사유도 가족문제보다 부부갈등으로 인하여 결혼 관계가 해체된 경우가 더 많았다. 즉 현대에 이르러 부부간의 관계가 다른 어떤 가족관계보다 우선시 되어 결혼생활의 유대를 강하게 해주면서, 동시에 부부간의 애정이 식으면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쳐 이혼을 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부부가 잠재적 불안정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지 못하고 결혼관계를 지속하는 부부들이 있다(이동원, 1988). 이것은 우리나라가 결혼의 영속성을 결혼성공의 지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예: 일부종사, 조강지처 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혼여성들은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결혼관계 이외의 대안적 매력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야기될 수 있는 이혼 후 여러가지 어려움을 생각하고 그들의 현재 결혼생활이 불만족스런 경우에도 결혼생활을 지속한다. 따라서 결혼안정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 사이에 존재하는 요인들은 사회교환이론으로 부터 도출된 개념으로 본래의 결혼을 유지하게 하는 외부적 압력과 결혼 이외의 대안적 매력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두가지 요인들이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Lewis 와 Spanier(1979) 그리고 Thomas 와

Kleber(1981)는 각기 다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에 관한 연구(최연실, 1988; 김선영, 1990), 그리고 결혼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에 대한 연구(김태현·이성희, 1988; 김미숙·김명자, 1990)만이 행해졌을 뿐 이러한 모델들에 대해서는 경험적으로 비교 검증된 바가 없다.

또한 오늘날 이혼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이혼 연구가 부재하고, 미국 중심적으로 행해진 결혼에 관한 연구결과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문화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현재 결혼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부부들의 결혼안정성을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우리나라 부부들의 결혼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생활 10년 이내의 이혼이 전체 이혼의 67.1%라는 사실(통계청, 1991)에 근거하여, 결혼지속년수가 10년 이하인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외부적 압력과 대안적 매력이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 사이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Lewis 와 Spanier(1979) 그리고 Thomas 와 Kleber(1981)의 두가지 모델을 비교 검토하고,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모델이 더 잘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을 밝혀 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혼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결혼안정성에 관한 교환이론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적합한 결혼안정성 모델을 정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A. 결혼안정성에 대한 개념 정의

Lewis와 Spanier(1979)는 결혼안정성을 결혼의 결과로써 나타내고 있다. 즉 안정된 결혼은 한 배우자의 사망에 의해서만 결혼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며, 불안정한 결혼은 한 배우자 또는 양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종료시키는 결혼을 의미한다.

그 후 Booth, Johnson과 Edwards(1983)는 결혼 불안정성을 결혼안정성과 같은 차원의 다른 극단에 있는 개념으로 보아, 결혼 불안정성이란 낮은 결혼만족도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도 아니고 결혼의 종료를 의미하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비록 결혼해체가 최종적인 결과는 아닐지라도 부부가 현존하는 결혼을 해체시키고자 하는 성향으로 결혼 불안정성을 정의하였다.

이러한 개념 정의는 결혼 불안정성의 지표로 이혼과 별거를 들고 있는 지금까지의 경험적 연구들(Bumpass & Sweet, 1972; Levinger, 1979; Lewis & Spanier, 1979; Udry, 1983)에서의 정의와는 다를 수 있다. 즉 Booth와 그의 동료들의 결혼 불안정성 개념정의는 불안정성 그 자체를 다루는 것으로서, 부부중의 한 사람 또는 모두가 결혼관계에 꽤 만족할 때조차도 결혼불안정성은 측정되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혼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나 서구 사회처럼 이혼이 부부간 갈등의 최선책이라는 사고방식이 만연되어 있지 않고, 또한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외부적인 압력으로 인해 결혼만족도가 낮아졌다고 해서 이혼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결혼불안정성 자체를 측정하는 Booth와 그의 동료들(1983)의 정의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들의 개념 정의를 사용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현재 결혼관계에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성향의 정도로 결혼안정성을 정의한다.

### B.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의 관계에 대한 이론 모델들

#### 1) Lewis와 Spanier의 이론 모델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에 관한 연구에 가장 많이 공헌한 이론은 사회교환이론이다. 교환이론의 기본적 전제는, 인간은 누구나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과정에서 비용을 극소화하고 이익이나 효용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선택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교환이론의 시각으로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을 살펴 본 연구는 Levinger(1965), Nye, White와 Friederes(1969), Burr(1973)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 후 1979년에 Lewis와 Spanier는 '결혼의 질과 결혼안정성의 사회교환이론'을 구성하였는데, 이들은 비록 낮은 질의 결혼이 반드시 이혼으로 끝나지 않고, 높은 질의 결혼이 항상 안정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모델은 결혼의 질이 결혼안정성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결혼의 질과 결혼안정성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변인(contingent variables)으로 결혼 이외의 대안적 매력과 결혼을 유지하게 하는 외부적 압력을 제시하고 있다. 대안적 매력은 결혼의 질과 결혼안정성 사이의 관계 강도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외부적 압력은 결혼의 질과 결혼안정성 사이의 관계 강도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 2) Thomas와 Kleber의 이론 모델

Thomas와 Kleber(1981)는 Lewis와 Spanier(1979)의 명제들에 대해 반대의 관계를 제안하였다. 이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결혼을 유지하게 하는 외부적 압력이 증가할 때 결혼의 질과 결혼안정성 사이에는 약한 관계가 존재한다; 본래의 결혼을 유지하게 하는 높은 외부적 압력하에서는 결혼해체와 관련된 비용들이 많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간에 결혼이 안정되므로 결혼의 질은 결혼안정성과 강력하게 관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대로, 낮은 외부적 압력하에서는 결혼해체와 관

련된 비용들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낮은 결혼의 질을 지닌 부부들은 그들의 결혼을 끝마치려 하고, 반면에 높은 결혼의 질을 지닌 부부들은 그들의 결혼을 지속시키려 할 것이다. 따라서 본래의 결혼을 유지하게 하는 낮은 외부적 압력을 지닌 부부들에게 있어서, 결혼의 질은 결혼안정성의 매우 훌륭한 예언 요인이 될 것이다.

Thomas와 Kleber(1981)는 Lewis와 Spanier(1979)가 관대한 이혼법과 본래의 결혼을 유지시키게 하는 낮은 압력을 지닌 국가들에서 결혼의 질과 결혼안정성 사이의 강력한 관계를 제한함으로써 똑같은 견해를 은연중에 제시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외부적 압력이 증가할 때, 결혼의 질과 결혼안정성 사이의 관계 강도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나타냈다.

(2) 결혼 이외의 대안적 매력이 증가할 때 결혼의 질과 결혼안정성 사이에는 강한 관계가 존재한다: 결혼의 질이 높은 부부들은 결혼의 질이 낮은 부부들보다도 높은 대안적 매력들에 직면해서도 그들의 결혼에 더 머물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결혼의 질이 낮은 부부들에게 대안적 매력이 많이 주어진다면 그들은 결혼을 끝마치려 할 것이다. 따라서 높은 대안적 매력을 경험하고 있는 부부들에게 있어서, 결혼의 질과 결혼안정성 사이의 강력한 상관관계를 예언할 수 있다.

반대로 대안적 매력이 적은 부부들은 결혼관계 이외의 갈 곳이 없으므로 비록 현재의 결혼생활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결혼관계를 떠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대안적 매력을 적게 지닌 부부들은 대안적 매력을 많이 지닌 부부들처럼, 결혼의 질이 결혼안정성의 훌륭한 예언 요인이 되지 못한다.

즉 Thomas와 Kleber는 대안적인 매력들이 증가할 때, 결혼의 질과 결혼안정성 사이의 관계강도는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Lewis와 Spanier는 대안적인 매력들이 감소할 때, 결혼의 질과 결혼안정성 사이의 관계가 더 강해진다고 하였다.

### 3) Lewis와 Spanier 그리고 Thomas와 Kleber의 이론 모델에 관한 관련 연구 고찰

Lewis와 Spanier(1979) 그리고 Thomas와 Kleber(1981)의 이론 모델의 논쟁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많지 않으나,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reen(1980)은 131명의 기혼자와 216명의 이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결혼의 질과 결혼안정성에 대한 Lewis와 Spanier의 이론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Green은 결혼의 질과 결혼안정성은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특히 결혼만족도가 유사할지라도 결혼에 대한 대안적 매력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이혼을 더 쉽게 행한다고 하였다. 반면 외부적압력은 여성의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지만, 자녀에 대한 의무감은 결혼을 유지시키는 유일한 외부적 압력이었다.

Green과 Sporkowski(1983)는 166명의 이혼한 사람들과 131명의 기혼자를 대상으로, 외부적 압력과 대안적 매력이 Lewis와 Spanier가 주장했던 것처럼 결혼의 질과 안정성 사이의 관계를 중재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인들은 여성에게 있어서의 결혼의 질과 결혼안정성 사이의 관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한편 결혼에 대한 대안적 매력 수준에 따른 결혼만족도와 결혼해체의 관계를 연구한 Udry(1983)는 남편과 부인 모두의 대안이 낮을 때, 결혼만족도와 해체사이의 역관계가 가장 강력하다고 제안하였다.

Schumm과 Bugaighis(1985)는 결혼의 질이 결혼안정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에는 많은 가족학자들이 일치할 하나, 결혼의 질과 결혼안정성 관계에 대한 상황적 요인들(contingency factors)로서의 결혼에 대한 대안적인 매력과 이혼에 대한 장애물의 이론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쟁이 전개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Schumm과 Bugaighis(1985)는 결혼안정성이 결혼의 질보다 우선 평가되어지는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 Thomas와 Kleber의 모델이 적용 가능한 반면, 결혼의 질이 결혼안정성보다 우선 평가되어지는 미국 사회 그리고 그와 유사한 사회적 경향들을 경험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Lewis와 Spanier의 모델이 적합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므로 두개의 모델은

논리적인 우월성을 경쟁한다기 보다는 각각의 이론이 특정 상황에서 타당함을 의미한다(그림 1, 2 참조).

Jeong(1991)에 의하면 높은 결혼만족도가 결혼안정성의 가장 중요한 지표이고, 결혼만족도가 높으면 대안적 매력이 많더라도 결혼안정성은 높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결혼관계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외부적 압력은 결혼안정성에 최소의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또한 Jeong은 대안적 매력을 실제적 대안과 가상적 대안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는데, 결혼생활이 불행한 여성들의 결혼안정성에 가상적 대안이 부적 효과를 나타낼 때 외부적 압력은 유의하게 이러한 효과를 감소시킨 반면, 높은 실제적 대안과 높은 외부적 압력은 결혼생활이 불행한 여성들의 결혼안정성을 다른 어떤 집단보다 더 낮게 하였다. 결국 이 두 대안은 외부적 압력과 결혼만족도에 다르게 작용되어지고 따라서 결혼안정성에 상이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결혼안정성은 어떠한 다른 이론이 제시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며, 결혼안정성은 유일한 한 요인에 의해서만 설명되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상황적 변인들은 남편과 부인간에 상이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이론 모델 검증에 있어서도 일관성있는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Jeong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대안적 매력 척도의 상이성으로 인하여 결혼안정성이 다르게 영향을 받았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실제적 대안과 가상적 대안으로 구분하여 대안적 매력을 측정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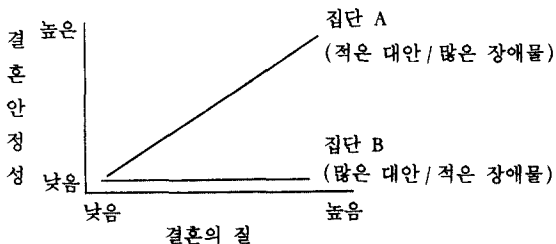
### C.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

이에 대한 관련 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결혼안정성(결혼 불안정성), 이혼이라는 용어가 함께 혼용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결혼안정성을 재는 척도의 상이성(예: 이혼 지표, Booth와 그의 동료들의 결혼안정성 척도 등)과 표집 방법상의 여러 문제로 인하여 연구 결과들을 비교 분석한다는 것은 어려우나 전반적인 경향을 개관하는데 의의를 두고,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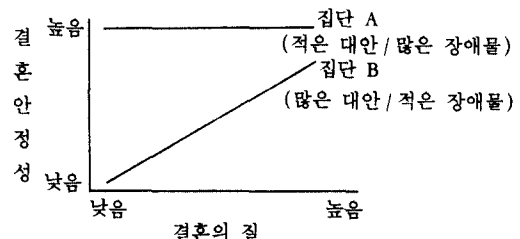
우선 결혼지속년수가 길어질수록 결혼안정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ooth et al., 1984; South & Spitze, 1986). 이러한 현상은 부부가 함께 오래 살아갈수록 그들의 경험이 반드시 긍정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함께 살아왔다는 것 자체가 이혼에 대한 장애물로 작용하여 결혼안정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Heaton & Albrecht, 1991).

또한 가족 자산이 있는 경우(예: 집 소유), 그 자산을 해체시키지 않으려는 생각이 억제 요인으로 작용하여 결혼안정성을 높인다(Levinger, 1979; South & Spitze, 1986)는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 수입자체 보다 수입에 대한 만족도가 결혼안정성과 더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태현·이성희, 1988), 부인의 수입은 부부의 결혼안정성에 부적인 효용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Booth et al., 1984).

부부의 높은 교육수준은 안정된 결혼과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Bahr & Galligan, 1984), 여성의



〈그림 1〉 Lewis와 Spanier의 이론 모델



〈그림 2〉 Thomas와 Kleber의 이론 모델

〈출처 : Schumm & Bugaighis(1985), p.75〉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고, 따라서 결혼 이외의 대안 수준이 증가하여 결국엔 결혼 불안정성을 야기시킨다는 결과(Cherlin, 1979)도 제시되고 있다. 한편 부인이 취업한 경우에 부과되는 시간 구속은 가사노동에의 어려움 그리고 부부간의 상호작용을 적게 해 결국엔 부부간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이것이 결혼 불안정성을 높인다는 결과(South & Spitze, 1986)도 있다.

앞서 살펴본 수입, 교육수준, 직업이 통합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으면 결혼안정성을 높인다는 결과(최연실, 1988; 김미숙·김명자, 1990; Huber & Spitze, 1980)가 있는 반면, 이러한 특성들은 결혼 해체를 설명하는데 있어 다른 요인들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Glenn & Supancic, 1984).

가정에서의 자녀 존재는 불행한 부부들에게 있어 이혼을 지연시킬 수 있다(Glenn & McLanahan, 1982). 즉 결혼생활이 불만족스런 부부들은 일반적으로 자녀를 그들의 가장 커다란 또는 유일한 결혼 만족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반대로 의존적인 자녀의 존재는 중요한 장애 세력으로 작용하여, 자녀가 있는 미국 부부들은 무자녀 부부보다 더 낮은 결혼만족도를 나타내며(Burr, 1970; Campbell, 1975), 따라서 더 많은 재정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에 대한 자녀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일반화시키기 어렵다.

부부간의 종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결혼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동원, 1988; 김미숙·김명자, 1990; Booth et al., 1983). 반면 종교 가입과 참여는 이혼, 별거에 대한 주요 장벽으로 인정되지 않은 결과(Heaton & Albrecht, 1991)도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은 대체로 일관성 있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인들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Ⅲ. 연구문제

#### A.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연구문제 1: 결혼안정성은 결혼만족도, 외부적 압력, 실제적 대안, 가상적 대안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가 설 1-1: 결혼만족도가 증가하면 할수록, 결혼안정성은 더 증가할 것이다.

1-2: 결혼을 유지하게 하는 외부적 압력이 증가하면 할수록, 결혼안정성은 더 증가할 것이다.

1-3: 결혼 이외의 실제적 대안이 증가하면 할수록, 결혼안정성은 더 감소할 것이다.

1-4: 결혼 이외의 가상적 대안이 증가하면 할수록, 결혼안정성은 더 감소할 것이다.

연구문제 2: 외부적 압력과 대안적 매력의 수준에 따라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1: 결혼을 유지하게 하는 외부적 압력이 많고 결혼 이외의 실제적 대안이 적을 때,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가?

2-2: 결혼을 유지하게 하는 외부적 압력이 적고 결혼 이외의 실제적 대안이 많을 때,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가?

2-3: 결혼을 유지하게 하는 외부적 압력이 많고 결혼 이외의 가상적 대안이 적을 때,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가?

2-4: 결혼을 유지하게 하는 외부적 압력이 적고 결혼 이외의 가상적 대안이 많을 때,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인구통계학적 변인, 결혼만족도, 외부적 압력, 실제적 대안, 가상적 대안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 B.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되었다.

1.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는 결혼생활의 일정한 시점에서 자신에 대한 상대 배우자의 이해와 관심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가를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것이다.

2. 결혼안정성: 결혼안정성은 부부가 현존하는 결혼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성향의 정도로 정의한다.

3. 외부적 압력: 본래의 결혼을 유지하게 하는 외부적 압력은 결혼을 해체하려고 할 때 자신이 경험하는 내적·외적 압박감 그리고 이혼시와 이혼후에 경험할 어려움의 정도로 정의한다.

4. 대안적 매력: 결혼 이외의 대안적 매력은 결혼 관계 바깥에서 현재 또는 잠재적으로 이용가능한 대안으로, 실제적 대안과 가상적 대안을 포함한다.

① 실제적 대안: 실제적 대안은 자신의 현재 결혼 생활과 비교하여 다른 관계에서 실제로 얻을 수 있는 보상의 정도로 정의한다.

② 가상적 대안: 가상적 대안은 결혼을 해체하려고 할 때 자신이 다른 관계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상상하는 보상의 정도로 정의한다.

## IV. 연구방법

### A.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결혼지속년수가 10년 이하인 기혼여성 228명이다. 결혼지속년수를 10년 이하로 제한한 이유는 이 기간의 부부들이 결혼생활 10년을 넘어서신 부부들보다 이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통계청, 199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기혼여성들의 연령은 28-32세가 57.9%(평균연령: 30.1세), 남편들의 연령은 30-35세가 61.9%를 차지하고 있었다(평균연령: 32.9세). 그리고 이들 부부의 평균 결혼 지속 개월수는 58.8개월(=4.9년)이다.

한편 자녀수는 2명이 42.5%, 1명이 39.0%, 그리고

자녀가 있지 않은 경우는 17.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연구대상자의 교육수준은 고졸 이상이 전체의 96%를(대졸 이상: 전체의 53.9%), 연구대상자의 남편들 역시 고졸 이상이 전체의 99%로서(대졸이상: 전체의 71%) 본 연구대상의 부부들은 고학력 경향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취업 유無에 대해 살펴보면 전업주부인 경우가 전체의 63.6%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취업을 한 경우에는 계장급 이하의 공무원이나 회사원·전기나 기계기사가 11.0%, 그리고 기술직(교사, 약사, 체육인, 종교인 등)은 15.4%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남편의 경우에는 전체의 58.3%가 계장급 이하의 공무원이나 회사원·전기나 기계기사이었으며, 11.0%가 관리직(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회사원)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들의 수입은 51-100만원이 28.2%, 101-150만원이 28.5%, 151-200만원이 25.9%, 201만원 이상이 16.6%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또한 수입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그저 그렇다가 37.0%, 불만족인 경우는 35.7%, 만족인 경우는 27.3%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종교는 무교(39.9%), 기독교(31.6%), 천주교(18.0%), 불교(9.2%) 순이었으며, 남편 역시 무교(51.3%), 기독교(22.4%), 천주교(13.2%), 불교(12.7%) 순이었다.

### B. 측정도구

#### 1) 결혼만족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결혼만족도 척도는 Schumm, Bollman과 Jurich(1981)가 만든 Abbreviated Barrett-Lennard Relationship Inventory(RI)의 15문항을 주축으로 하고 여기에서 생략된 감정이입적 이해(Empathic Understanding)의 4문항을 첨가한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 연구에서 사용했던 척도 대신 RI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유는 RI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잘 확립되어 있으며, 특히 배우자 상호간의 지각과 감정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본 연구대상인 젊은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 수준을 측정하기에 적합하다

고 생각되어진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결혼만족도 척도와는 다르게 결혼안정성에 대한 정의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에 관한 본 연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혼만족도의 적절한 척도이다(Wampler & Powell, 1982).

응답 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한 결과 .90을 나타내 신뢰할 수 있는 척도로 볼 수 있다.

한편 척도를 요인분석한 결과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3가지 요인(감정이입적 이해, 관심의 정도, 일치감)이 추출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했던 결혼만족도 척도가 결혼만족도를 제대로 잘 나타내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 설문지에 Kansas Marital Satisfaction 척도를 함께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두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측정하였더니 .67 ( $p=.0001$ )이라는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로써 본 연구에서 사용했던 결혼만족도 척도가 타당한 척도임이 입증되었다.

## 2) 결혼안정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결혼안정성 척도는 Booth와 그의 동료들(1983)이 만든 Marital Instability Index (MII)이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결혼만족도가 낮아졌다고 해서 이혼으로 연결되지 않고 부부간의 잠정적인 결혼 불안정성과 관련되는 것이므로 부부들사이의 불안정성 그 자체를 측정하기 위해서 MII를 사용하였다.

MII는 자신의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정서적·인지적 평가에서 부터 실제 이혼 제안이나 별거 경험등 행동적 측면까지 포함하는, 즉 결혼생활의 심각성이 더 심해지는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이 현재 결혼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부부가 함께 이혼에 관한 대화를 시작한 문항 부터 별거 경험을 묻는 문항까지는 예비조사 결과 대상의 거의 대부분이 '전혀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9문항을 제거한 10문항과 새로이 만든 1문항(나는 내

결혼 생활에서 탈피하고 싶다)을 첨가시켜 11문항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Booth와 그의 동료들이 사용하였던 반응 척도(전혀 한 적이 없다, 한 적이 있다, 지난 3년 이내에 한 적이 있다, 지금하고 있다)보다는 각 문항에 대한 강도로써 반응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하여 척도 반응을 수정하였으며('매우 그렇다'의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5점, 또는 '상당히 많이 했다'의 1점에서 '전혀한 적이 없다'의 5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안정성이 높아진다.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를 사용한 결과 .86으로 높게 나타났다.

## 3) 외부적 압력

본 연구에서는 Levinger(1965) 그리고 Lewis와 Spanier(1979)의 연구들에서 사용했던 본래의 결혼을 유지하게 하는 외부적 압력들을 토대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문항을 보충하였고(예: 친정부모님과 친정식구들의 압력, 이혼 후 경제적 부담에 대한 압박감과 외로움에서 오는 허전함), 배우자가 결혼과 자신에게 쏟는 헌신과 신뢰로 인한 압박감에 관한 3문항을 첨가하여(Jeong, 1991) 총 17문항으로 본 연구의 외부적 압력 척도를 구성하였다.

척도를 요인분석한 결과 3요인이 추출되었는데, 요인 I은 이혼을 고려할 때 경험하는 자신 주변의 외부적 압력(자녀에 대한 의무감 포함)을, 요인 II는 결혼생활에서 느끼는 압박감을, 그리고 요인 III은 이혼시와 이혼후에 경험할 어려움을 의미하는데, 이 3요인 모두는 전체변량의 53%를 설명한다.

응답 범주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의 1점에서 '상당히 많이 느낀다'의 5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이혼을 고려할 때 외부적 압력을 많이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를 사용하였는데, 그 결과는 .82로 높게 나타났다.

## 4) 대안적 매력

본 연구에서는 대안적 매력 척도로 실제적 대안과 가상적 대안을 사용하였다. 선행 연구들이 이 두가



지 대안 척도를 실제적 대안과 가상적 대안으로 구분하지 않고 각기 대안적 매력 척도로 사용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각 척도의 구성요인들이 다르므로 따라서 결혼안정성에 대해 다른 결과를 제시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Jeong, 1991)에 근거하여 두가지 대안적 매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두가지 대안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실제적 대안

실제적 대안의 척도는 Johnson(1978)의 척도를 변안·수정한 것으로 현재 결혼생활과 비교하여 만약 자신이 독신이거나 다른 누군가와 결혼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한 내용으로 모두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 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실제적 대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한 결과 .80으로 높게 나타났다.

#### (2) 가상적 대안

가상적 대안의 척도는 Udry(1981)의 Marital Alternatives Scale(MAS)를 변안·수정하여 사용하였다. MAS는 본래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 대상이 기혼여성이므로 남편을 대상으로 한 1문항을 제외한 10문항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척도를 요인분석한 결과, 요인 I은 경제적 수준 유지와 관련된 내용이었고(전체 변량의 39.5% 설명), 요인 II는 배우자 교체와 관련된 내용(전체 변량의 15.2% 설명)으로서, Udry(198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응답 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의 1점에서 '확실히 그럴 것이다'의 4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가상적 대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한 결과 .84로 높게 나타났다.

### C.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가정법률상담소에 이혼을 상담하러 온 기혼여성들과 현재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

혼여성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척도들의 내용이 수정·보완되었다.

본 조사는 1992년 9월 16일부터 10월 2일까지 총 280부의 설문지를 결혼지속년수가 10년 이하인 기혼 여성들에게 배부하였다. 회수된 설문지에서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와 결혼지속년수가 10년을 넘어선 설문지 그리고 현재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시킨 228부만을 본 연구의 자료로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처리는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요인분석,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Fisher Z의 변형과 t-test,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의  $\alpha$ 를 산출하였다.

## V. 연구결과 및 해석

### 1. 결혼만족도, 외부적 압력, 실제적 대안, 가상적 대안에 따른 결혼안정성

(연구문제 1)에 관련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각 변인간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서 살펴보았듯이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은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자신의 현재 결혼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인 결혼안정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최연실, 1988; 김미숙·김명자, 1990; Lewis & Spanier, 1979; Green, 1980; Green & Sporakowski, 1983).

본래의 결혼을 유지하게 하는 외부적 압력과 결혼안정성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 해체를 막는 장벽이 높을수록 결혼안정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한 최연실(198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본 연구결과와 선행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외부적 압력을 재는 척도가 다른 것도 포함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본 연구대상의 평균 연령은 30.1세이고 최연실 연구의 평균 연령은 40세라는 사실이다. 즉 본 연구의

〈표 1〉 결혼만족도, 외부적압력, 실제적 대안, 가상적 대안, 결혼안정성의 상관관계표 (N=215)

	결혼만족도	외부적압력	실제적대안	가상적대안	결혼안정성
결혼만족도					
외부적압력	.066				
실제적대안	-.402****	.043			
가상적대안	-.131	-.157*	.310****		
결혼안정성	.544****	.117	-.314****	-.233***	

\* P &lt; .05 \*\*\* P &lt; .001 \*\*\*\* P &lt; .0001

대상이 더 젊기 때문에 그들이 결혼을 해체하려고 할 때 주변으로부터의 압력은 그들에게 더 이상 비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고, 시대적 변천에 따라 점차 많은 기혼여성들이 외부적 압력을 덜 지각하게 되고 이것이 실제로 그들의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실제적 대안과 가상적 대안 사이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는 실제적 대안과 가상적 대안이 비록 각 척도에 의해 측정된 구성요인들이 다르다 할지라도, 포괄적으로 대안적 매력을 측정하기 때문이다. 실제적 대안과 결혼안정성 그리고 가상적 대안과 결혼안정성 사이에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적이든 가상적 형태이든지 간에 대안적 매력이 많을수록 결혼안정성이 낮아짐을 의미하므로 지금까지의 많은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최연실, 1988; Lewis & Spanier, 1979; Levinger, 1979; Green, 1980).

그러나 결혼만족도와 실제적 대안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 $r = -.402, p < .0001$ )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생활에 만족해하는 기혼여성일수

록 결혼 이외의 실제적 대안에 대해 덜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볼 때 (가설 1-1), (가설 1-3), (가설 1-4)는 지지되고 (가설 1-2)는 기각되었다.

## 2. 외부적 압력과 실제적 대안에 따른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의 관계

(연구문제 2-1), (연구문제 2-2)를 검증하기 위하여 평균을 중심으로 외부적 압력(M=47)과 실제적 대안(M=15)을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고,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4집단(외부적 압력이 낮은 집단과 실제적 대안이 낮은 집단, 외부적 압력이 낮은 집단과 실제적 대안이 높은 집단, 외부적 압력이 높은 집단과 실제적 대안이 낮은 집단, 외부적 압력이 높은 집단과 실제적 대안이 높은 집단)의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 사이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의하면, 외부적 압력이 낮고 실제적 대

〈표 2〉 외부적 압력과 실제적 대안에 따른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의 상관관계표

집 단	N	r
외부적 압력 ↓, 실제적 대안 ↓	60	.53****
외부적 압력 ↓, 실제적 대안 ↑	56	.59****
외부적 압력 ↑, 실제적 대안 ↓	61	.37**
외부적 압력 ↑, 실제적 대안 ↑	44	.49***

\*\* P &lt; .01 \*\*\* P &lt; .001 \*\*\*\* P &lt; .0001

안이 높은 집단의 상관계수( $r=.59$ )가 다른 3집단의 상관계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부적 압력이 적고 대안이 많을 때 결혼의 질과 결혼안정성 사이에 강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Thomas와 Kleber(1981)의 주장과 일치한다. 그러나 6집단의 두 상관계수간( $r=.53$ 과  $r=.59$ ,  $r=.53$ 과  $r=.37$ ,  $r=.53$ 과  $r=.49$ ,  $r=.59$ 와  $r=.37$ ,  $r=.59$ 와  $r=.49$ ,  $r=.37$ 과  $r=.49$ )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계수를 Fisher Z으로 변형시킨 후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각 집단의 두 상관계수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외부적 압력과 가상적 대안에 따른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 관계

(연구문제 2-3), (연구문제 2-4)를 검증하기 위하

여 평균을 중심으로 외부적 압력( $M=47$ )과 가상적 대안( $M=26$ )을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고,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4집단(외부적 압력이 낮은 집단과 가상적 대안이 낮은 집단, 외부적 압력이 낮은 집단과 가상적 대안이 높은 집단, 외부적 압력이 높은 집단과 가상적 대안이 낮은 집단, 외부적 압력이 높은 집단과 가상적 대안이 높은 집단)의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 사이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살펴보았듯이, 외부적 압력이 낮고 가상적 대안이 낮은 집단의 상관계수( $r=.72$ )가 다른 3집단의 상관계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6집단의 두 상관계수간( $r=.72$ 와  $r=.43$ ,  $r=.72$ 와  $r=.46$ ,  $r=.72$ 와  $r=.46$ ,  $r=.43$ 과  $r=.46$ ,  $r=.43$ 과  $r=.46$ ,  $r=.46$ 과  $r=.46$ )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계수를 Fisher Z으로 변형시킨 후 t-test를 실시하였다

<표 3> 외부적 압력과 가상적 대안에 따른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의 상관관계표

집 단	N	r
외부적 압력 ↓, 가상적 대안 ↓	53	.72****
외부적 압력 ↓, 가상적 대안 ↑	60	.43***
외부적 압력 ↑, 가상적 대안 ↓	62	.46***
외부적 압력 ↑, 가상적 대안 ↑	40	.46**

\*\* P < .01 \*\*\* P < .001 \*\*\*\* P < .0001

<표 4> 외부적 압력과 가상적 대안에 따른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의 상관계수들간의 차이

집 단	N	r	t
외부적압력 ↓, 가상적대안 ↓	53	.72	2.31*
외부적압력 ↓, 가상적대안 ↑	60	.43	
외부적압력 ↓, 가상적대안 ↓	53	.72	2.14*
외부적압력 ↑, 가상적대안 ↓	62	.46	
외부적압력 ↓, 가상적대안 ↓	53	.72	2.14*
외부적압력 ↑, 가상적대안 ↑	40	.46	

\* P < .05

나 외부적 압력이 낮고 가상적 대안이 낮은 집단의 상관계수가 다른 3집단의 상관계수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이러한 결과는 외부적 압력이 낮고 가상적 대안이 낮은 상황하에서,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 사이에 강한 관계가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대안적 매력이 적을 때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 사이에 강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Lewis와 Spanier(1979)의 모델과 그리고 외부적 압력이 낮을 때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 사이에 강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Thomas와 Kleber(1981)의 모델을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또한 가상적 대안이 낮은 상황하에서 결혼만족도가 결혼안정성을 예측하였는데, 만약 이들이 실제적 대안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결혼만족도에 의해 결혼안정성을 예측할 수 없으리라 생각되어진다. 하지만 외부적 압력이 낮고 다른 관계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상상하는 가상적 대안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하에서 결혼만족도가 높으면 결혼을 유지하려하고, 만족도가 낮으면 결혼을 해체하려는 성향이 크다는 것은 이들 젊고 고학력인 기혼여성들의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 관계에는 외부적 압력과 대안적 매력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해석에 의하면 본 연구 결과는 결혼의 질과 안정성에 대한 상황적 변인들은 여성에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한 Green과 Sporakowski(1983)의 결과와 일치한다.

#### 4.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들(인구통계학적 변인<sup>1)</sup>, 결혼만족도, 외부적 압력, 실제적 대안, 가상적 대안)의 상대적인 영향력

(연구문제 3)을 검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적용에서 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lity)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표 5 참조). 그 결과 부인의 연령과 남편의 연령간의 상관계수가 .70 이상으로서 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이 나타나 남편의 연령을 제외시키고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참조).

〈표 6〉에서 살펴보았듯이 부인이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이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 결혼안정성이 높다는 결과는 부인이 취업한 경우에 수입이 생기고 결혼이외의 대안 수준이 증가하여 결혼불안정성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Cherlin, 1979; Booth et al., 1984), 부인의 취업으로 인해 가사노동이 어렵고 부부간의 상호작용이 감소해 결국엔 부부간의 갈등을 발생시켜 결혼불안정성을 높인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지지하고 있다(South & Spitz, 1986).

한편 결혼만족도가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 가장 중요한 변인( $\beta=.54$ )이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결혼지속년수가 10년 이하인 기혼여성들은 다른 변인들보다도 결혼만족도가 그들의 결혼안정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임이 밝혀졌다.

1) 인구통계학적 변인에는 부인의 연령, 남편의 연령, 결혼지속 개월수, 수입, 수입만족도, 부인의 교육수준, 남편의 교육수준, 부인의 취업유무, 남편의 직업, 부인의 종교유무, 남편의 종교유무, 부인과 남편의 종교 일치, 자녀유무가 포함되었다. 이들 변인 중 부인의 취업유무, 부인의 종교유무, 남편의 종교유무, 부인과 남편의 종교 일치 그리고 자녀유무는 명목변수이므로 가변수 처리하였다.

부인의 취업유무 : 취업한 경우=1, 취업하지 않은 경우=0

부인의 종교유무 : 종교가 있는 경우=1, 없는 경우=0

남편의 종교유무 : 종교가 있는 경우=1, 없는 경우=0

부인과 남편의 종교일치 : 일치하는 경우=1, 일치하지 않는 경우=0

자녀 유무 : 자녀가 있는 경우=1, 자녀가 없는 경우=0

〈표 5〉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의 상관계수, 평균 및 표준편차 (N=20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부인의 연령	1.00																	
2.남편의 연령	.79	1.00																
3.결혼지속 개월수	.70	.70	1.00															
4.수 입	.09	.08	.07	1.00														
5.수입 만족도	-.06	.03	-.03	.23	1.00													
6.부인의 교육수준	-.09	-.18	-.30	.16	-.06	1.00												
7.남편의 교육수준	-.03	-.07	-.20	.17	.03	.68	1.00											
8.부인의 취업유무(有=1)	-.04	-.13	-.21	.23	-.08	.21	.10	1.00										
9.남편의 직업	.07	.06	-.08	.30	.07	.36	.42	.02	1.00									
10.부인의 종교유무(有=1)	.09	.12	.12	.07	-.07	.02	.10	-.00	-.01	1.00								
11.남편의 종교유무(有=1)	.06	.09	.10	.10	-.02	.07	.19	-.14	.09	.59	1.00							
12.종교 일치도(일치=1)	-.01	.02	-.05	-.01	.08	-.08	-.08	-.00	-.01	-.20	-.25	1.00						
13.자녀유무(有=1)	.40	.40	.48	.00	.01	-.16	-.12	-.11	-.07	.10	.02	-.05	1.00					
14.결혼만족도	-.11	-.13	-.10	.20	.15	.25	.27	.10	.13	.03	.19	-.07	-.12	1.00				
15.외부적 압력	-.01	-.03	-.01	-.05	.01	.09	.15	.00	-.02	.13	.12	-.08	.04	.08	1.00			
16.실제적 대안	.01	-.03	-.01	.03	-.30	.02	-.04	.07	-.02	-.05	-.24	.02	.08	-.40	.03	1.00		
17.가상적 대안	.05	.03	-.05	.06	-.07	.05	.00	.10	.00	.05	-.11	.08	.07	-.13	-.18	.31	1.00	
18.결혼안정성	-.04	-.10	-.02	.10	.21	.02	.05	-.10	.02	-.07	.07	-.01	-.02	.54	.12	-.31	-.22	1.00
평균	30.04	32.88	58.09	163.36	2.88	5.26	5.69	0.36	6.02	0.58	0.47	0.95	0.83	66.91	46.67	15.21	26.17	40.98
표준편차	3.34	3.59	32.33	84.88	1.05	1.11	0.96	0.48	1.44	0.49	0.50	0.22	0.38	10.28	10.75	4.35	4.85	7.61

〈표 6〉 결혼안정성에 대한 회귀분석표

독립변인	b	SE	$\beta$
부인의 연령	.17	.19	.08
결혼지속 개월수	-.02	.02	-.10
수 입	.01	.01	.06
수입만족도	.54	.46	.08
부인의 교육수준	-.40	.57	-.06
남편의 교육수준	-.39	.65	-.05
부인의 취업유무(有=1)	-2.16	1.01	-.14*
남편의 직업	-.21	.35	-.04
부인의 종교유무(有=1)	-1.24	1.12	-.08
남편의 종교유무(有=1)	-.28	1.17	-.02
종교 일치(일치=1)	.08	2.03	.00
자녀 유무(有=1)	.93	1.33	.05
결혼 만족도	.40	.05	.54****
외부적 압력	.06	.04	.09
실제적 대안	-.08	.12	-.05
가상적 대안	-.16	.10	-.10
Constant		17.04	
R <sup>2</sup>		0.374****	

\* P < .05 \*\*\*\* P < .0001

## VI.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 결혼지속년수가 10년 이하인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 사이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만족도가 높아질수록 결혼안정성이 증가하였으며, 결혼 이외의 실제적 대안과 가상적 대안이 많아질수록 결혼안정성은 감소하였다. 그러나 외부적 압력과 결혼안정성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결혼을 유지하게 하는 외부적 압력과 결혼 이외의 실제적 대안의 수준에 따른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 사이의 관계 강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결혼을 유지하게 하는 외부적 압력이 낮고 결혼 이외의 가상적 대안이 적을 때 결혼만족도가 결혼안정성을 가장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째, 부인이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결혼지속년수가 10년 이하인 기혼여성들에게 있어서는 결혼만족도가 결혼안정성의 가장 강력한 예언 요인이 밝혀졌다. 또한 외부적 압력과 가상적 대안이 낮은 상황에서 결혼안정성이 결혼만족도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나 Lewis와 Spanier(1979) 그리고 Thomas와 Kleber(1981)의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 모델을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에 의하면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변인인 외부적 압력과 대안적 매력은 본 연구에서는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의 결과 결혼안정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상황적 변인들은 남성에게 영향을 미치나 여성에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Green과 Sporakowski(1983)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다시 말하여 오늘날 젊고 고학력의 기혼여성들은 부부내적인 관계에서의 보상과 비용을 결혼관계 이외의 보상과 비용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결혼만족도는 결혼관계를 계속 유지하느냐의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

으며, 이것은 결혼의 영속성을 결혼성공의 최대 지표로 생각하던 것에서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결혼안정성 모델 설정시 미국의 것을 그대로 따르기 보다는 우리 문화에 맞는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 모델의 설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

특히 주목할 사실은 결혼지속년수가 10년 이하인 기혼여성들은 결혼을 해체하려고 할 때 더 이상 주변의 외부적 압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의해 오늘날 결혼생활 10년이내의 부부들이 10년을 넘어서는 부부들보다 이혼율이 높음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최연실, 1988; Lewis & Spanier, 1979)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로서, 본 연구의 대상이 젊고 고학력이기 때문에 결혼해체시에 외부적 압력을 더 이상 비용으로 지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미래에 연령과 교육수준이 유사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여 이러한 결과가 연령에 의해 기인된 것인지 또는 교육수준에 의해 기인된 것인지 아니면 시대적 변천에 따라 나타난 현상인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도 점차 외부적 압력을 덜 지각하게 되고 실제적 대안도 여성들에게 많이 주어지며, 이혼은 결혼불만족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태도를 지니게 되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부간의 긴장과 갈등이 발생할 때 이를 중재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1차적 집단에서의 도움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서의 도움, 즉 부부문제 상담을 위한 전문기관의 활성화, 부부 또는 가족들의 관계 증진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대상이 젊고 고학력의 기혼여성이므로 여기에서 제시된 연구결과들을 일반화시킬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대안적 매력을 실제적 대안과 가상적 대안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는데, 이러한 문항들이 실제적 대안과 가상적 대안을 잘 나타내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

에 대한 내용 타당도가 검증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결혼에는 “남편과 부인의 결혼(his and her marriage)”이 존재한다고 한 Bernard(1982)의 설명처럼 성별에 따라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압력과 대안적 매력의 형태와 지각 정도가 다를 것이다. 또한 가족생활주기가 변화함에 따라 외부적 압력과 대안적 매력의 형태와 정도가 달라질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우선 각각의 가족생활주기에 있는 남편과 부인들이 어떠한 것을 외부의 압력과 대안적 매력으로 지각하는지를 밝히고, 그 후 외부적 압력과 대안적 매력이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 사이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김미숙·김명자, “도시 부부의 결혼안정성 및 그 관련 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8권 1호, 1990, 171-183.
- 2) 김선영, “도시 저소득층 부인의 결혼만족도와 결혼불안정성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3) 김태현·이성희, “도시 주부의 결혼불안정성에 관한 일 연구”, 성신여대 논문집, 1988, 211-228.
- 4) 이동원, “도시부부의 결혼의 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 5) 인구통계년보, 대한통계협회, 1991.
- 6) 최연실,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른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7) Bernard, J., *The future of marriage*, New York: Yale University Press, 1982.
- 8) Booth, A., Johnson, D.R., & Edwards, J.N., “Measuring marital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1983, 387-394.
- 9) Booth, A., Johnson, D.R., Edwards, J.N., & White, L., “Women, outside employment, and marital instabili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0(3), 1984, 567-583.
- 10) Cherlin, “Work life and marital dissolution”, In Levinger, G., & Moles, O.C. (Eds.), *Divorce and Separation*, New York: Basic Books, 1979, 151-166.
- 11) Glenn, N.D., & McLanahan, S., “Children and marital happiness: a further specification of the relationship”,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 1982, 63-72.
- 12) Glenn, N.D., & Supancic, M., “The social and demographic correlates of divorce and separation in the United States: an update and reconsider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1984, 563-575.
- 13) Green, R.G., “A test of a theory of marital quality and marital stability”,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1980.
- 14) Green, R.G., & Sporakowski, M.J., “The dynamics of divorce: marital quality, alternative attractions and external pressures”, *Journal of Divorce*, 7(2), 1983, 77-88.
- 15) Heaton, T.B., & Albrecht, S.L., “Stable unhappy marriag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1991, 747-758.
- 16) Huber, J., & Spitze, G., “Cosidering divorce: an expansion of Becker’s theory of marital instabili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6, 1980, 75-89.
- 17) Jeong, G.J., “Marital satisfaction and marital Stability: a further conceptual reformulation”,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Kansas State University, 1991.
- 18) Johnson, F.C., “A test of social exchange model of marital stability”,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Washington State University, 1978.
- 19) Levinger, G., “Marital cohesiveness and dissolution: An integrativ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7, 1965, 19-28.
- 20) —————,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 on marital dissolution", In Levinger, G., & Moles, O.C.(Eds.), *Divorce and Separation*, New York: Basic Books, 1979, 37-60.
- 21) Lewis, R.A., & Spanier, G.B., "Theorizing about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In Burr, W., Hill, R., Nye, I., & Reiss, I.(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I*, New York: Free Press, 1979, 268-294.
- 22) Schumm, W.R., Bollman, S.R., & Jurich, A.R., "Dimensionality of an abbreviated version of the Relationship Inventory: An urban replication with married couples", *Psychological Reports*, 48, 1981, 51-56.
- 23) Schumm, W.R., & Bugaighis, M.A., "Marital quality and marital stability: resolving a controversy", *Journal of Divorce*, 9(1), 1985, 73-77.
- 24) South, S.J., & Spitz, G., "Determinants of divorce over the marital life cours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1, 1986, 583-590.
- 25) Thomas, D.L., & Kleber, J.E., "Comment on marital quality: A review on the seven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1981, 780-782.
- 26) Udry, J.R., "Marital alternatives and marital disrup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4), 1981, 889-897.
- 27) ———, "The marital happiness/disruption relationship by level of marital alternativ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1), 1983, 221-222.
- 28) Wampler, K.S., & Powell, G.S., "The Barrett-Lennard Relationship Inventory as a measure of marital satisfaction", *Family Relations*, 31, 1982, 139-145.